파스칼에 있어서의 二元論

李　　桓
(佛文科 敎授)

파스칼은 그의 護敎論을 人間學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이 人間學에 「神없는 人間의 悲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의 『팡세』 제 1 부는 바로 이에 해당된다. 파스칼은 2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제 1 부를 통하여 「神없는 人間」 즉 모든 초월성이 배제된 오직 人間일 뿐인 人間을 현상학적으로 분석, 검증하였고, 그 결과로서 「悲慘」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悲慘」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실은 그 안에 人間存在의 복합적인 양상이 내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矛盾 (contrariétés)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人間의 근원적 內的 對立 또는 二律背反의 양상이다. 다시 말해서 파스칼은 모든 영역에서 人間이 노정하는 悲慘의 모습들을 추적하되 이 悲慘의 개념은 偉大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는 이 悲慘과 偉大의 〈풀 수 없는 混合〉, 〈矛盾〉[1] 이야말로 人間存在의 영원한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결론은 물론, 人間學의 범주 안에서는 이 矛盾을 극복할 수 없다는 최후의 확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파스칼은 人間 안에 悲慘과 偉大의 공존을 인정하는 二元論者란 말인가. 그의 人間學은 분명히 그의 二元論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人間 안에 대립되는 두 개념, 悲慘과 偉大를 발견하였으며, 이 엄연한 확인 앞에서 〈그 누가 이 뒤얽힌 矛盾을 풀겠는가?〉라는 고뇌어린 물음을 던지고 있다. 우리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의 二元論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스칼의 계속되는 追求를 뒤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人間 안에 발견한 矛盾의 양상은 그의 존재론적 省察의 결론이라기보다 오히려 출발점을 이루고 있으며, 그는 스스로에 던진 물음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실의 確認에 뒤이어 이 사실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의 부여를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파스칼의 정신적 모험에 있어 가장 극적인 순간들은 이렇게 해서 전개되는 그의 人間 解釋學(hermoneutique)의 시도일 것이다. 그의 人間學 속에서 발견된 二元論이 이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어떤 새로운 照明을 받으며 어떻게 재설정되는가를 보는 것은 분명히 흥미로운 일이다.

아울러 우리의 이와 같은 關心은 필연적으로 西歐思想의 한 본질적 명제에 우리를 접근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西歐思想은 그 어떤 형태로든간에 대립과 갈등의 도식 속에서, 나아

* 本 論文은 1980년도 문교부 연구조성비를 받아 완성된 것임을 밝힌다.

1) *Pensées* 제 7 편의 제목이기도 한 contrariétés란 말은 〈矛盾〉 외에 〈對立〉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가서는 그러한 갈등의 극복의 시도 가운데 성장한 것으로 밀어지기 때문이다. 精神과 物質과의 원초적 대립에서부터 비롯하여 人間에 있어서의 肉體와 精神(또는 靈魂), 感性과 知性, 感情과 意志와의 대립, 윤리적 차원에서의 자연적 존재와 당위적 존재, 현실과 이상, 이기심과 사랑, 惡과 善 등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二元論에 이르기까지 그 대립의 양상과 이에 대한 해결의 시도는 다양하다. 우리는 파스칼의 二元論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진행되는 동안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西歐의 전통적 二元論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스칼 자신 그의 人間學的 고찰 가운데 형학적 二元論을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아마도 哲學과의 對比를 통하여 파스칼의 問題意識을 더 정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Ⅰ. 人間의 〈二元性〉—la duplicité

먼저 파스칼과 더불어 사실의 확인에서부터 시작하자. 矛盾의 발견으로 결론지어지는 그의 人間學은 悲慘의 현상학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파스칼은 人間의 근원적 욕구로서 眞理에 대한 희구와 幸福의 추구를 설정하고 있는데 결국 그의 인간학적 고찰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人間이 벌이는 갖가지 모험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성립되고 있으며, 그가 〈悲慘〉이란 말로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모험들의 궁극적인 좌절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1. 悲慘(la misère)

여기 먼저 眞理에 대한 희구, 다시 말해서 理性的 認識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眞理를 희구한다. 그러나…〉

人間은 理性的 존재임을 스스로 자랑하며 이 理性은 眞理를 추구하고 또한 眞理를 소유한다고 때때로 자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스칼의 입장은 이 자부와는 거리가 멀다.

〈인간은 분별없이는 자연적이고도 지울 수 없는 誤謬로 가득한 존재이다. 아무 것도 그에게 眞理를 보여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를 기만하여…〉[2]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理性을 농락하여 그 판단을 어지럽히고 마침내 誤謬로 인도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 멀리 나설 필요도 없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른바 〈散瞞的 세력

2) *Pensées*, fr. 83-82 : 《L'homme n'est qu'un sujet plein d'erreur, naturelle et ineffaçable sans la grâce. Rien ne lui montre la vérité. Tout l'abuse....》(斷章의 첫째번호는 Bruschvieg版, 둘째번호는 Lafuma版).

3) 가령, 〈벗겨져서 왕왕거리는 한마리의 파리〉(fr. 336-181), 〈클레오파트라의 코〉(fr. 162-90), 〈기타 우리의 利害關係〉(fr. 82-81), 〈病〉(fr. 82-81), 〈好奇心〉(fr. 82-81)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용이하게 우리의 판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가.

les puissances trompeuses〉[3]이라는 명칭 아래 몇 가지 주요한 原理들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誤謬와 虛僞의 주관자〉로서 理性을 한낱 〈가소로운 神〉으로 만드는 想像力[4],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믿고 따르게 함으로써 인간 가운데 〈第2의 本性〉을 이루고 있는 習慣[5], 自我에 대한 본능적인 執着 및 愛着으로써 眞實을 왜곡시키는 自愛心[6]등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想像力은 인간의 판단 속에 誤謬를 도입하고, 習慣은 우연히 받아들여진 것들을 영속화시킴으로써 理性 위에 군림하고, 自愛心은 자신에게 불리한 眞實들을 혐오케 하는 등 결국 이러한 기만적 세력들은 서로 협력하여 理性的 思考의 파탄을 초래케 한다. 이 엄청난 〈誤謬의 原理들〉[7]은 말하자면 理性의 〈낮〉의 지배에 대항하는 〈밤〉의 지배와도 같다. 문제는 理性의 빛이 이 밤의 어둠을 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삼키워버리는 데 있다. 이 어둠이야말로 人間의 자연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現實이다. 다시 말해서 우연, 관습, 정념이 소용돌이치는 이 어둠은 人間의 보다 직접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현실이며 理性은 그 안에서 〈바람 따라 나부끼는 가소로운 神〉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理性은 자신을 위협하는 이 모든 세력들에 대항하여 그의 자율적 기능을 고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理性은 비록 연약하지만 분명히 그 자체의 기능이 있으며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파스칼은 理性 자체로 돌아와 理性的 認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묻는다.

理性은 人間에 있어 매우 강력한 지배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理性은 人間의 존재[8] 그 자체를 이룬다고 까지 말할 수 있다.[9] 그러나 이와 같은 자부와 理性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理性은 우리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한다. 여기 문제되는 것은 理性的 認識의 限界이다. 가령, 論理的 推論에 있어 理性은 推論의 최후의 명제에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왜냐하면 한 명제는 다른 명제로 이어져 무한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반대로 최초의 根本命題에도 도달할 수 없다(왜냐하면 최초의 것으로 제시하는 명제도 실은 그 자체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제로 뒷받침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다른 명제를 기초로 가지고 있어 결코 궁극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理性的 推理는 사물의 終極에도 根源에도 다같이 미치지 못하며 다만 〈사물의 중간의 어떤 外樣을 보는 것〉에 그친다. 사실 人間의 능력은 모든 분야에

4) Cf. fr. 82-81. 想像力의 가공할 위력을 설명하고 있는 긴 斷章 : 《L'imagination dispose de tout: elle fait la beauté, la justice et le bonheur..》

5) 파스칼은 人間의 거의 모든 價値가 習慣—la coutume의 소산임을 밝히면서 그것의 위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 《..l'habitude, qui sans violence, sans argument, nous fait croire les choses, et incline toutes nos puissances à cette croyance...》 (fr. 252-7), 나아가서 《La coutume est notre nature》 (fr. 93-241)라고까지 말한다.

6) Cf, fr. 100-99. 〈眞理에 대한 혐오〉로 유도하여 타인 앞에서 欺瞞의 희극을 연출케 하는 自愛心—l'amour-propre의 비참을 고발하는 斷章.

7) fr. 82-81: 《des principes d'erreur》.

8) fr. 345-311: 《La raison nous commande bien plus impérieusement qu'un maître.》

9) Fr. 439-132: 《...la raison, qui fait son être...》

서 어떤 중간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人間이 〈그 대상과 같은 오만으로써 사물의 根源을 이해하고 이로써 만물을 알기에 이르려 한 것은 기묘한 일이다.〉[10]

여기 하나의 反問이 있을 수 있다—理性이 비록 사물의 根源과 終局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限界 안에서의 부분적 認識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가능하며 때로는 인간적 승리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스칼은 전체적 認識이 전제되지 않은 부분적 認識은 그 자체 무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人間 및 人間을 에워싼 내적·외적 현실은 무한히 複合的인 것으로서 어떤 절제적 秩序(현대적 어휘를 사용한다면 構造)를 이루고 있는바, 각 부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全體 가운데 미묘한 상관관계로써 연결되어 있는 만큼 全體를 떠난 부분적 認識은 상대적이고 따라서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理性的 認識의 절망은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은 절적인 無知에서가 아니라 총체적이고 완전한 認識의 불가능에서 유래한다. 人間은 분명히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확실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태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도 없고 전히 모를 수도 없는 것은 이것때문이다. 항상 부동하는 우리는 한끝에서 또 한끝으로 떠밀리어 광막한 中間을 표류한다.… 우리는 하나의 견고한 기반, 최후의 변함없는 끝기슭을 발견하고 그 후에 無限에까지 오르는 탑을 세우고자 꿈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온갖 기초는 흔들리고 大地는 深淵에 이르기까지 입을 벌린다.〉[11]

眞理의 추구가 이와 같이 실패로 끝난다면 幸福의 추구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파스칼은 먼저 모든 人間에 공통된 행복에 대한 집착, 맹목적이고도 집요한 執着에 주목한다. 그는 이 執着을 人間의 意志에 결부시킨다. 즉, 意志는 삶의 意志 그 자체이며 幸福에 대한 갈구는 이 삶의 원초적 더나미즘에 뿌리박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삶이 있는 곳에 이 삶의 근원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意志가 있는바, 인간의 모든 行爲의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파스칼은 意志의 이와 같은 속성을 〈무게〉[12]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 〈무게〉가 기울어지는 데 따라 모든 것은 결정지어지고 人間은 기꺼이 그 부름에 복종한다. 人間行動의 제일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意志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人間의 모든 행위의 원리이다.〉[13]

10) Fr. 79-390: 《C'est une chose étrange qu'ils ont voulu comprendre les principes des choses, et de là arriver jusqu'à comprendre tout, par une présomption aussi infinie que leur objet》.

11) Fr. 79-390: 《Voilà notre état véritable. C'est ce qui nous rend incapable de savoir certainement et d'ignorer absolument. Nous voguons sur un milieu vaste, toujours incertains et flottants, poussés d'un bout à l'autre... nous brûlons de désir de trouver une assiette ferme, et une dernière base constante pour y édifier une tour qui s'élève à l'infini, mais tout notre fondement craque, et la terre s'ouvre jusqu'aux abimes.》

12) 《le poids》. Cf. ***Lettre à Ch. de Roannez*** (du 24 Septembre 1956). 《Avant que l'on soit touché [par Dieu], on n'a que le *poids* de sa concupiscence...》

13) Fr. 425-300. 《La volonté ne fait jamais la moindre démarche que vers cet objet. C'est le motif de toutes les actions de tous les hommes...》

이리하여 人間의 삶이 있는 곳 마다 幸福의 추구라는 끈질긴 드라마가 펼쳐진다. 표면상 이 原理와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행동, 가령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터, 머나먼 航海의 길로 나아가는 것, 심지어는 목매어 자살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도 행복의 추구의 한 변형된 표현일 따름이다. 이 모든 행위는 동일한 念願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만 이 念願에 상이한 결해가 따른 것 뿐이다.〉

그렇다면 이 追求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만인이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 지점에 信仰없이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가 탐식한다. 王도 臣下도, 貴族도 平民도, 老人도 青年도, 强者도 弱者도…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 그리고 모든 身分의 사람들이.〉[14]

汎快樂主義에 뒤이어 파스칼은 不幸의 보편성을 확인한다. 人間 가운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타오르는 이 〈熱望〉과 무수히 되풀이되는 〈挫折〉을 동시에 발견하는 파스칼은 人間의 悲慘의 또 하나의 측면과 마주서게 되는 것이다.

2. 偉大(la grandeur)

파스칼이 그의 人間學 가운데 펼쳐 보여주는 悲慘의 現象學은 이상과 같다. 그는 人間의 보편적인 두가지 욕구, 즉 眞理와 幸福의 二重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여 不確實性과 不幸이라는 二重의 挫折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결론을 삼고 있다. 굳이 요약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斷章을 들 수 있으리라.

〈우리는 眞理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은 不確實 뿐이다. 우리는 幸福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발견하는 것은 悲慘과 죽음뿐이다. 우리는 眞理와 幸福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確實性도 幸福도 가진 능력이 없다.〉[15]

그러나 이와 같은 人間의 無力과 悲慘의 확인은 파스칼로 하여금 悲慘 그 자체에 못지 않게 중대한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케 하고 있다. 왜냐하면 悲慘의 의식은 그 자체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挫折은 열렬한 希求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斷章에서도 파스칼은 眞理에 대한 갈망, 幸福의 추구를 그 불행한 결과인 悲慘과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다. 眞理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에 認識의 절망이 있을 수 없고, 幸福에 대한 염원이 없는 곳에 不幸의 의식도 있을 수 없다. 悲慘은 분명히 〈그 무엇〉에 대응하는 意識이며 파스칼은 이제 이 悲慘의 개념을 좀더 深化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眞理와 幸福에 대한 이 열망이 人間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보는데 있

14) Cf. fr. 425-300.

15) Fr. 437-125: 《Nous souhaitons la vérité, et ne trouvons en nous qu'incertitude. Nous cherchons le bonheur, et ne trouvons que misère et mort. Nous sommes incapables de ne pas souhaiter la vérité et le bonheur, et sommes incapables ni de certitude ni de bonheur.》

다. 이미 되풀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열망은 人間의 지울 수 없는, 원초적인 욕구임에 틀림없다.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人間의 삶의 조건, 아니 삶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들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지속적인 것이기에 사람들은 때때로 그것들을 성취시킬 능력이 人間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까지 한다. 確實性의 추구에 있어 소위 獨斷論者들 (les dogmatistes)은 人間이 자연적 理性의 능력으로써 확실한 知識의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한편, 幸福의 추구에 있어서도 克己主義者들(les stoïciens)은 人間이 자신의 意志의 힘으로써 平靜과 善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결국 그들 가운데 강렬하게 타오르는 志向을 현실적인 능력으로 착각한 환각자들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志向은 우리 가운데 가공할 힘으로 작용하며 우리를 열병환자처럼 〈신음하며 추구하게〉 한다. 이 志向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패배는 더 비참한 것이 되며, 반대로 우리의 悲慘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志向의 偉大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사실 人間 가운데 理性의 威嚴, 그리고 인간적 榮譽에 대한 집착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人間의 가장 큰 低俗은 영예의 추구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의 優越性의 최대의 표시이다.〉[16]

우리가 흔히 말하는 〈虛榮〉이라는 것도 실은 優越과 偉大에의 지향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

〈虛榮은 人間의 마음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것으로서 兵士도 요리사도 인부도 자기를 자랑하며, 칭찬해줄 사람을 찾는다. 哲學者들까지도 이를 원한다…〉[17]

우리는 파스칼과 더불어 오랫동안 悲慘의 현장들을 더듬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이 悲慘이 어떤 偉大에의 志向, 단적으로 말해서 偉大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悲慘의 갖가지 現象들은 人間을 짓누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悲慘의 무게를 느끼는 意識 가운데 偉大는 잉태되어 있다. 人間은 悲慘하기에 偉大하고 또한 위대하기에 비참하다.

파스칼은 이 悲慘의 意識을 가리켜 〈思惟 la pensée〉라고 불렀고, 자신의 비참을 의식하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 비유하였다. 〈갈대〉는 悲慘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참을 아는 갈대이다.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비참하다—사실 비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18]

---

16) Fr. 404-9: 《La plus grande bassesse de l'homme est la recherche de la gloire, mais c'est cela même qui est la plus grande marque de son excellence...》

17) Fr. 150-94: 《La vanité est si ancrée dans le coeur de l'homme, qu'un soldat, un goujat, un cuisinier, un crocheteur se vante et veut avoir ses admirateurs, et les philosophes mêmes en veulent...》

18) Fr. 416-237: 《L'homme connaît qu'il est misérable: il est donc misérable, puisqu'il l'est; mais il est bien grand, puisqu'il le connaît.》

우리는 이제, 人間의 존엄을 이룬다고 파스칼이 확언하는 〈思惟〉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물과 존재의 신비를 해독하고 인간의 운명을 인도하는 확신에 넘친 思惟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悲慘을 느끼는 의식이다.

결국 人間의 偉大는 悲慘 그 자체 속에 깃들여 있다. 〈나무는 자신의 悲慘을 모른다.〉 짐승도 또한 마찬가지다. 짐승이 비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本性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本性의 것을 人間은 悲慘으로 의식한다.

〈人間의 偉大는 너무나도 명백한 것으로서 곧 그의 悲慘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짐승에 있어 本性의 것을 우리는 悲慘이라 부르기 때문이다.〉[19]

3. 矛盾 (les contrariétés)

우리는 이 章에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 일차적으로 밝혀진 人間의 悲慘은 다시 偉大의 개념과 한 쌍을 이룸으로써 결국 人間은 어떤 二重構造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人間은 단순히 悲慘한 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지울 수 없는 偉大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人間은 비참하기에 위대하며, 위대하기에 비참하다. 人間存在 가운데 悲慘과 偉大는 영원히 불가분의 한 쌍을 이룬다.

〈悲慘은 偉大에서 결론지어지고 偉大는 悲慘에서 결론지어지는 만큼 한편으로는 悲慘을 偉大의 증거로 이용할수록 보다 강하게 悲慘을 결론짓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偉大를 悲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논할수록 보다 강하게 偉大를 결론짓는다. 그리하여 한편에서 偉大를 밝히기 위하여 진술한 모든 것은 다른 편에서 悲慘을 결론짓기 위한 論理로써 이용될 뿐이다…사람이 빛을 갖는데 따라 人間 안에 偉大와 悲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20]

파스칼은 偉大와 悲慘, 〈끝없는 원을 그리며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이 양자의 共存을 가리켜 矛盾 또는 對立 (les contrariétés)이라 부르고 있다. 상반되는 두 요소의 풀 수 없는 混合, 對立과 矛盾의 명어리로서의 二重性 이것이야말로 파스칼의 人間學의 결론이며, 그가 『광세』 제 I 部에서 밝히고자 하였던 〈神없는 人間〉의 모습이다. 그는 이 人間을 悲慘이란 말로 특징지었지만 이제 그것은 해독해야 할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 人間이란 그 얼마나 기괴한 짐승인가! 이 어인 珍奇, 妖怪, 混沌, 矛盾의 존재, 그리고 경이인가! 萬物의 심판자요 또한 추악한 지렁이, 진리의 受託者요 또한 불확실과 오류의 시궁창, 宇宙의 영예요 또한 폐물! 그 누가 이 뒤얽힌 矛盾을 풀겠는가.〉[21]

---

19) Fr. 409-221: 《La grandeur de l'homme est si visible, qu'elle se tire même de sa misère. Car ce qui est ***nature*** aux animaux, nous l'appelons ***misère*** en l'homme...》

20) Fr. 416-237: 《La misère se concluant de la grandeur, et la grandeur de la misère, les uns ont conclu la misère d'autant plus qu'ils en ont pris pour preuve la grandeur, et les autres concluent la grandeur avec d'autant plus de force qu'ils l'ont conclue de la misère même, tout ce que les uns ont pu dire pour montrer la grandeur n'a servi que d'un argument aux autres pour conclure la misère... étant certain qu'à mesure que les hommes ont de lumière, ils trouvent et grandeur et misère en l'homme...》

이로써 파스칼의 人間學은 확인의 단계에서 說明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의 人間學은 矛盾의 존재로서의 人間存在를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나 이것으로 그의 探求는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을 對立과 矛盾의 존재로 파악한 이상 그는 이 矛盾이 무엇에 연유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 누가 이 뒤엉킨 矛盾을 풀겠는가.〉

Ⅱ. 哲學的 二元論

파스칼의 人間學的 考察이 밝혀낸 人間의 二重的 構造는 서구의 전통적 哲學에 있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哲學의 탄생과 더불어 해묵은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다. 人間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行動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많은 哲學者들은 人間 가운데 상반되는 上昇의 원리와 下降의 원리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독자적인 설명을 가하고자 시도하였다. 精神과 肉體, 意志와 情念, 理性과 感性 등 갖가지 相克의 형식을 상정하였고, 때로는 前者에, 또 때로는 後者에 優位를 인정하면서 갈등의 극복 내지는 해소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들에 있어서도 人間은 어떤 의미에서 偉大와 悲慘의 혼합물이었으며 그들의 哲學은 이 兩者 사이에서 엮어지는 어떤 調停 또는 選擇의 방식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파스칼은 필연 이들과 마주치게 된다. 〈神없는 人間〉을 순수히 〈自然의 빛〉 즉 理性의 照明에 의해 밝히고자 일관했던 파스칼은 사실상 哲學的 思考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人間의 矛盾을 해명하는데 있어서도 그는 계속 哲學의 범주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 問題에 있어 〈超自然의 빛〉에 호소하기에 앞서 먼저 〈自然의 빛〉에 의뢰하는 것은 그의 方法論에 비추어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 哲學者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들이 人間의 矛盾에 대해 제시하는 해답은 무엇인가.

1. 獨斷論과 克己主義

파스칼은 먼저 理性의 권위와 능력에 절대적 신뢰를 갖는 일단의 철학자들, 흔히 獨斷論者 (dogmatistes)로 불리워지는 이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인간의 思考와 知識을 오직 明證과 確實性의 기반 위에 세우고자 했던 이 合理主義者들은 理性的 認識과 推理에 의해 모든 것이 설명되고 체계화되는 하나의 觀念的 構造를 이룩함으로써 人間의 勝利, 人間의 偉大를

21) Fr. 434-246: 《Quelle chimère est-ce donc l'homme? Quelle nouveauté, quel monstre, quel chaos, quel sujet de contradiction, quel prodige! Juge de toutes choses, imbécile ver de terre; dépositaire du vrai, cloaque d'incertitude et d'erreur, gloire et rebut de l'univers. Qui démêlera cet embrouillement?》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파스칼은 필연적으로 데카르트(Descartes)와 마주치게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야말로 골드만이 말한바 17세기 초엽, 〈상승하는 合理主義〉[22]의 가장 빛나는 대변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모든 知識 및 學問體系를 전면적이고도 방법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科學的 原理와 理性的 자각에 입각한 근대적 合理主義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다. 그는 物理學에 있어 精神主原論(animisme) 대신 새로운 機械論的 원리를 도입하였고, 認識論에 있어서는 人間의 思考를 잡다한 편견과 관념적 허구에서 해방시켜 본래의 기능과 위엄을 되찾게 함으로써 理性의 自律과 權威를 회복시켰다. 파스칼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즉 理性의 自律性과 절대적 優位. 데카르트에 있어 人間과 世界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觀念으로 환원되며 人間의 自我는 본질상 〈思惟하는 主體 sujet pensant〉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이 관념적 주체는 自我로부터 출발하여 世界, 宇宙, 無限 그리고 神까지도 포용하는 찬란한 觀念的 體系를 구축하기에 이르른다. 데카르트의 人間은 이 모든 것을 빈틈없이 장조하는 理性的 存在이며 그것은 곧 偉大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觀念哲學에 대한 파스칼의 비판에 관하여 우리는 길게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理性的 認識의 실패를 논한 悲慘의 章에서 우리는 파스칼의 批判을 제시한바 있으며 그것은 데카르트의 哲學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자신의 限界를 망각한 理性의 傲慢에 대하여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일소에 붙인다. 그가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은 理性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23] 理性의 전체주의적 성향이다. 理性은 그 무엇이기는 하되 全體는 아니다. 인간의 偉大의 虛像에 속은 데카르트는 知的 傲慢에 빠져들었으며, 결국 인간의 悲慘의 實像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眞理의 추구에 있어 理性의 全能을 믿는 獨斷論者들과 아울러 파스칼은 幸福의 추구에 있어 倫理的 完成을 믿는 또 하나의 무리들에 주목한다. 인간의 理性의 偉大에 뒤이어 여기 문제되는 것은 意志의 偉大이다. 克己主義者들(les stoïciens)로 불리우는 이들은 人間이 意志의 힘으로써 스스로를 제어하며 마침내 마음의 平靜을 향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파스칼은 이들을 논함에 있어 에피크테토스(Epictète)를 대변자로 등장시킨다.

그는 먼저 에피크테토스가 인간의 義務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理想을 제시한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시한다. 에피크테토스는 人間에게 허용된 內的 自由를 중요시하였고 이 自由로써 自我 및 世界와의 화해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人間의 삶에는 두 가지의 형태로 작용하는 運命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는 人間에게 타율적으로 작용하는 外的 運命이고 또 하나는 人間이 자신의 自由와 意志로써 제어할 수 있는 內的 運命이다. 재산, 건강, 가정 등은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것으로서, 말하자면

22) Cf. L. Goldmann, *Le Dieu caché*, p. 42: 《le développement ascendant du rationalisme.》
23) Fr. 282-214: 《...la raison, qui voudrait juger de tout...》

運命의 神의 재량에 속한 것이다. 그것들은 神의 뜻에 의해 주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만큼 주어져 있는 동안 누리면 되는 것이고 또한 빼앗겼다고 해서 괴로와하며 원망할 것도 없다. 문제는 그러한 外的 運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 그런데 인간이 자유로이 할 수 있고 또한 진실로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은 이 마음, 즉 그의 內面이다. 인간은 비록 外的 運命에는 예속되어 있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內的 自由로써 이 운명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으며 이로써 마음의 平靜을 찾고 가능한 善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克己的 모랄에 대한 파스칼의 입장은 合理的 獨斷論에 대한 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에피크테토스는 인간의 義務와 도덕적 의지를 훌륭히 대변하였지만, 한편 人間의 현실적 無力을 보지 못함으로써 傲慢에 빠져들었다. 그는 인간의 偉大를 고취하고, 그의 전적인 內的 自由, 정신과 의지의 요지부동한 公正性, 다시 말해서 自我에 대한 절대적인 힘을 믿었던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人間의 悲慘을 외면한 幻覺의 소산일 뿐이다.

〈그들은 단순히 偉大의 감정을 고취하였다. 그것은 人間의 상태가 아니다.〉[24]

그렇다면 人間의 상태란 어떤 것인가.

2. 懷疑論과 快樂主義

여기 〈人間의 상태〉에 보다 민감한 일단의 현실주의자들이 있다. 먼저 懷疑論者들 (les pyrrhoniens)의 경우를 살펴보자.

파스칼은 이들의 대변자로 몽테뉴(Montaigne)를 내세운다. 몽테뉴야말로 가장 완벽한 회의주의자, 古代 피롱에서부터 비롯된 懷疑主義의 갖가지 주제들을 체계화하여 논리적 극단에까지 밀고 갔던 사람이다. 그는 人間의 모든 能力과 自信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한다. 人間은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것은 幻覺者의 망상이 아닌가. 인간은 知識으로 만물을 넘어선다고 믿고 있지만 도대체 人間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神은, 영혼은, 生命은, 肉體는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대하여 인간의 知識은 어떤 납득할 만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哲學者의 수만큼 각양각색의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인간의 知識이란 일종의 無知, 현학적 無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人間은 인식하기 위해 두개의 기관, 즉 感覺과 理性이 있는데, 감각을 신뢰할 것인가, 理性을 신뢰할 것인가. 感覺은 우리를 기만하고, 理性은 번번히 虛僞를 眞으로 착각하게 한다.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물음〉의 형태로 제시할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때 모른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무엇을

24) Fr. 525-285: 《Ils inspiraient des mouvements de grandeur pure, et ce n'est pas l'état de l'homme.》

아는가〉—남는 것은 이 물음뿐이다.

결국 몽테뉴는 人間에게 통용되어온 온갖 知識과 確實性의 허구를 폭로함으로써 모든 것이 偶然과 幻想의 소산임을 보여준다. 그의 보편적 회의에서 살아남는 價値라고는 하나도 없다. 法, 社會制度, 正義의 개념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인위적인 가치이다. 가장 엄밀한 幾何學의 公理도 아무런 논리적 확실성도 없으며 자연학·의학·역사·도덕 등은 온통 편견과 불확실로 채워져 있다.

이렇듯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論理를 구사하는 몽테뉴는 결국 파스칼이 말한 人間의 悲慘의 뛰어난 증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몽테뉴가 본 〈인간의 상태〉는 바로 이 悲慘의 상태이며 그것은 認識의 절망을 의미한다.

파스칼은 몽테뉴가 그토록 예리하게 人間의 無力을 파헤치며 獨斷論者들이 자랑했던 오만한 理性을 여지없이 강타하는 〈인간의 인간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反亂을 기쁨없이는 바라볼 수 없다〉[25]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懷疑主義에 대한 그의 전적인 同意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완벽한 懷疑主義의 不可能性, 다시 말해서 그것의 限界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회의할 것인가? 깨어 있는지, 꼬집히는지, 불태워지는지도 회의할 것인가? 회의하는 것도 회의할 것인가?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회의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다. 실로 완벽한 懷疑의 무리가 있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自然이 무력한 理性을 지탱하여 그토록 극단을 달리지 못하도록 견제한다.〉[26]

그뿐만이 아니다. 이와 같은 無知의 고백, 그리고 체념은 人間의 또 하나의 眞實을 외면 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眞理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懷疑論도 이 관념을 무찌를 수는 없다.〉[27]

懷疑論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마도 우리에게는 眞理 그 자체를 획득할 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眞理의 〈관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되풀이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追求를 멈출 수 없다. 몽테뉴는 悲慘의 現實만을 봄으로써 총체적인 人間의 모습을 왜곡시킨 것이다.

快樂主義者들이 제시한 幸福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省察을 가할 수 있다. 이

25) Pascal, *Entretien avec M. de Saci*: 《···que je ne puis voir sans joie dans cet auteur la superbe raison si invinciblement froissée par ses propres armes, et cette révolte si sanglante de l'homme contre l'homme...》

26) Fr. 434-246: 《Doutera-t-il de tout? doutera-t-il s'il veille, si on le pince, si on le brûle? doutera-t-il s'il doute? doutera-t-il s'il est? On n'en peut venir là, et je mets en fait qu'il n'y a jamais eu de pyrrhonien effectif parfait. La nature soutient la raison impuissante, et l'empêche d'extravaguer jusqu'à ce point.》

27) Fr. 395-287: 《Nous avons une idée de la vérité, invincible à tout le pyrrhonisme.》

분야에서 파스칼은 여전히 몽테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몽테뉴의 哲學은 극단적인 懷疑에 기울어지는데, 뒤이어 그는 이 哲學에 바탕을 둔 매우 현실주의적인 모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 인간은 眞과 僞를 분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善과 惡을 구분할 능력도 없다. 그렇다면 도덕의 절대적 기준에 따라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며, 다만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받아들이고 自然이 명하는 대로 행동하며 풍습과 관례에 따르는 실제적 태도가 문제될 따름이다. 이 태도야말로 인간에게 삶의 안락과 마음의 平和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原理는 本能의 무절제한 해방이나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들은 더욱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전체적 調和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삶의 예지는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예지는 스토아主義者들의 경우와 같이 고통스럽고 강제적인 노력을 수반하는 대신 오히려 미소와 만족 가운데 성장해 나간다. 요컨대 몽테뉴의 懷疑主義는 결도있는 快樂主義로 기울어진다. (無知와 無關心이야말로 잘 만들어진 영리한 머리에는 기분좋은 두개의 베게이다.)[28]

이상과 같은 快樂主義的 모랄에 대한 파스칼의 비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인간이 절대적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그리고 無限을 소유할 수 없을 때, 남는 것은 効用의 철학과 有限을 즐기는 快樂뿐이다. 몽테뉴가 이 効用을 중시하고 삶의 가능한 享樂을 추구한 것은 그의 현실주의적 태도로 보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는 有限, 無知, 죽음, 한마디로 〈悲慘〉으로 요약되는 人間條件을 있는 그대로 수락하였으며 이 수락이야말로 예지의 시작이라고 믿었다.

파스칼이 거부한 것은 바로 이 人間條件의 수락 그 자체이다. 물론 이 人間的 現實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체념하고 순응할 것인가, 이에 반항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決斷에 속한다. 몽테뉴는 前者를 선택함으로써 人間의 威嚴를 애당초 포기하였다. 그는 悲慘의 重壓에 짓눌린 나머지 偉大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아 버린 것이다.

3. 哲學的 二元論

인간의 理性的 思考의 소산물은 이상과 같다. 그것들은 상반되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認識의 문제에 있어 한편에는 합리적 獨斷論이 있고 또 한편에는 懷疑主義가 있다. 전자는 認識의 확실성을 믿음으로써 理性의 偉大를 고취하였고, 후자는 모든 것의 불확실성을 결론지음으로써 認識의 悲慘을 폭로하였다. 哲學의 歷史는 사실상 이 兩者 사이의 영원히 화해할 길 없는 대립으로 엮어진 것이다. 파스칼은 우리가 자연적

28) Pascal, *Entretien avec M. de Saci:* 《...que l'ignorance et l'incuriosité sont deux doux oreillers pour une tête bien faite...》

直觀에 의해 획득하는 基本原理들의 眞正性을 애워싼 논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독단론자들의 유일한 强點을 취급하려 한다. 즉 성실과 진실로서 말할 때 사람은 本來的 原理들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하여 懷疑論者들은, 요컨대 우리의 本性의 기원까지 포함한 우리의 起源의 불확실성을 제시한다. 이에 獨斷論者들은 세상이 시작한 이래 아직도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29]

幸福과 善의 追求에 있어서도 哲學者들은 두 유파로 갈라진다. 한편에는 克己主義者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快樂主義者들이 있다. 인간의 偉大를 믿는 전자는 이성적 판단과 內的 規制로써 最高善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인간의 無力 앞에 애당초 체념한 후자는 自然에 따라 外的 事物 가운데 삶을 즐길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에서는 〈너 자신 안으로 되돌아 가라. 너의 平安을 찾을 곳은 그곳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밖으로 나가라. 娛樂을 즐김으로써 幸福을 찾으라〉[30]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권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를 따라 안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밖으로 몰아내는 사물로 넘쳐 있다.〉 후자를 따라 밖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幸福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내밀의 本能〉이 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따를 수도 없고 또한 외면할 수도 없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내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따름이다.

결국 哲學을 통하여 파스칼은 자신이 人間 가운데 확인한 〈矛盾〉 또는 〈二重性〉을 체계화된 思想 가운데 재확인하거에 이르며, 이 矛盾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던 그의 새로운 試圖는 〈끝없는 圓을 그리며 공전함〉 뿐 단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 哲學者들은 〈이 뒤얽힌 矛盾〉을 풀기는 커녕 그것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파스칼이 발견한 상반된 두 狀態 중 어느 한편에 자신들의 哲學과 倫理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自然의 빛〉에 따라 人間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이 이해에 입각한 모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상이한 관점에서 人間의 眞實을 보았고 이 眞實에서 연역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규범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그들의 眞實이 어떤 총체적 진실의 한 부분에 불과한 점에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모랄도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獨斷論과 懷疑主義, 스토아적 倫理와 快樂主義——사실상 모든 哲學은 이 兩極 사이를 오가고 있다. 전자는 認識의 확실성과 當爲의 意志를 강조하였고, 후자는 理性의 無力과 悲慘의 상태를 보았다. 한편에서는 人間이 되어져야 할 이상을 고취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29) Fr. 434-246: 《Je m'arrête à l'unique fort des dogmatistes, qui est qu'en parlant de bonne foi et sincèrement, on ne peut douter des principes naturels. Contre quoi les pyrrhoniens opposent en un mot l'incertitude de notre origine, qui enferme celle de notre nature, à quoi les dogmatistes sont encore à répondre depuis que le monde dure.》

30) Cf. fr. 465-286.

人間의 현재의 상태에 주목하였다. 人間의 威嚴, 意志, 傲慢으로 치닫는 이상주의자들과 人間의 悲慘, 나약, 비굴로 떨어지는 현실주의자들.

이렇듯 哲學은 人間의 문제에 빛을 던져주기는 커녕 본래적인 矛盾과 對立을 한결 심화시키고 있다. 人間 속의 二元性이 그대로 哲學 속에 二元論으로 이어진 것이다.

Ⅲ. 基督敎的 二元論

파스칼은 그의 人間學의 결론으로서 人間存在의 근원적 矛盾, 이른바 그의 〈二重性〉을 발견하였고, 다시 哲學的 思考 가운데 人間에 대한 二元的 해석을 발견하였다. 파스칼은 두개의 哲學을 각각 비판하면서 그것들이 각각 人間 안의 두 狀態 중 어느 하나만을 인정함으로써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偉大의 감정을 교육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狀態가 아니다. 그들은 단순히 卑俗의 감정을 교육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狀態가 아니다.〉[31]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각기 분리되어 고찰된 偉大와 卑俗은 인간의 〈전적인〉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두개의 哲學은 각기 일면의 眞實이 있고, 일면의 誤謬가 있다.

〈한편에서는 최초의 偉大의 흔적을 보고…天性을 건전하고 보상자가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로써 인간을 傲慢의 극치로 몰아갔다. 그 반면 다른 편에서는 현재의 비참만을 보고 天性을 절연적으로 불완전하고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로써…인간을 극도의 卑屈 속에 몰아넣었다.〉[32]

1. 哲學에서 神學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두개의 哲學이 일면의 眞實과 일면의 誤謬를 안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眞實을 한데 묶어 각각의 誤謬를 수정함으로써 총체적 眞實을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綜合(synthèse)의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의 眞實은 다른 편의 誤謬로 과격됨으로써 그들은 끝없는 對立 가운데 피차의 本質을 말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대상인 人間에 대해서 동시에 人間은 위대하다, 人間은 비참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분명한 논리적 矛盾이 된다. 두 哲學의 화해할 길 없는 對立은 결국 그것들이 偉大와 悲慘을 다같이 동일한 〈本性〉, 즉 人間 그 자체 가운데 설정하고 있는 데서 유래된다.

31) Cf. fr. 525-285.

32) Pascal, *Entretien avec M. de Saci:* 《...de sorte que l'un, remarquant quelques traces de sa première grandeur, ...a traité la nature saine et sans besoin de réparateur, ce qui méne au comble de la superbe, au lieu que l'autre, éprouvant la misére présente... traite la nature comme nécessairement infirme et irréparable, ce qui le précipite dans... une extréme lâcheté.》

〈이 지상의 賢者들은 상반된 것들을 같은 主體 가운데 위치시킨다. 혹자는 偉大를 인간의 本性에 결부시키는가 하면 또 혹자는 같은 本性에 無力을 결부시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33]

여기 파스칼은 哲學的 二元論의 본질적 矛盾, 그리고 限界를 명백히 하고 있다. 哲學이 偉大와 悲慘을 동일한 主體, 동일한 次元 안에 위치시키는 한 和解의 길은 찾을 수 없으며 〈끝없는 원을 그리며〉 對立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哲學的 二元論——우리는 이것을 水平的 二元論이라 부르고 싶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水平線上에서 哲學은 또 하나의 對立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理性的 思考 안에서 여전히 풀 수 없는 人間의 矛盾에 대한 새로운 빛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것인가. 哲學의 좌절은 우리로 하여금 哲學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次元으로 移行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문제를 요약해 보자. 인간의 존재론적 현실은 명백히 인간의 二重性을 결론짓게 한다. 인간이 사실상 偉大와 悲慘으로 분열된 二律背反의 존재인 이상,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哲學的 思考가 인간의 本性 가운데 다시 대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哲學者들은 각기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水平線上에 偉大의 실재를 보기도 하고 悲慘의 실재를 보기도 하였다. 파스칼은 이들의 誤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한걸음을 내딛는다.

〈이 두 流派의 오류는 인간의 현재의 상태가 그의 創造의 상태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34]

〈현재의 상태〉와 〈創造의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파스칼은 여기 人間的 思考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개입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哲學者들이 한 主體 속에 두었던 두개의 상태를 각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좀더 귀를 기울여 보자.

〈…이와는 달리 信仰은, 무력한 모든 것은 自然에 속하고 힘있는 모든 것은 恩寵에 속하는 만큼 상반된 것들을 각기 다른 主體 속에 둘 것을 가르친다.〉[35]

여기 信仰이라 함은 基督敎의 敎理를 의미한다. 이 敎理도 人間을 지배하는 두 原理를 인정하는 점에서 哲學과 일치한다. 그러나 두 原理를 동일한 主體 속에 설정하는 대신 각기 다른 主體에 귀속시킴으로써 전혀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自然과 恩寵, 人間과 神으로 갈라서는 두개의 秩序이다. 哲學이 동일한 水平線上에 설정했던

33) *Ibid.*: 《...ces sages du monde placent les contraires dans un même sujet, car l'un attribuait la grandeur à la nature et l'autre la faiblesse à cette même nature, ce qui ne pouvait subsister...》 (Br. minor, p.160)

34) *Ibid.*: 《...que la source des erreurs de ces deux sectes est de n'avoir pas su que l'état de l'homme à présent diffère de celui de sa création...》 (Br. minor, p.160)

35) *Ibid.*: 《...au lieu que la foi nous apprend à les [les contraires] mettre en des sujets différents, tout ce qu'il y a d'infirme appartenant à la *nature*, tout ce qu'il y a de puissant appartenant à la *grâce*.》 (Br. minor, p.160)

두 狀態는 이제 垂直的인 관계로 분리된다. 이 새로운 二元論은 말하자면 垂直的 二元論이다.

이 二元論의 중추적 개념은 墮落——보다 신학적 어휘를 사용한다면 原罪이다. 人間은 창조되었을 때 完全과 절대적 幸福, 즉 神의 榮光을 누렸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榮光의 상태에서 추방되어 不完全과 不幸의 상태에 떨어진 것이다.

〈신의 지혜는 말한다…나는 선성하고 죄없고 위정한 人間을 창조하였고 빛과 지혜로 충만케 하였다. 나는 인간에게 나의 榮光과 경이를 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토록 많은 榮光을 지니고 있을 수가 없어 懶慢에 떨어지고 말았다.…그 결과 현재 인간은 짐승과 같은 것이 되었고, 내게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나머지 창조주의 희미한 빛은 오직 한가닥 남아 있을 따름이다.…

오늘날 人間이 처해 있는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제 1의 本性이 누린 幸福에 관한 한가닥 무력한 本能이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제 2의 本性이 된 盲目과 邪欲의 悲慘 속에 파져 있다.〉[36]

번거로움을 무릅쓴 이 긴 引用은 파스칼이 제시하는 기독교적 二元論의 본질을 분명히 조명해 주고 있다.

2. 垂直的 二元論

파스칼의 人間學은 결국 여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최초 人間을 단지 人間으로서 고찰하여 그 가운데 偉大와 悲慘이 상호대립되는 矛盾의 드라마를 발견하였다. 인간을 하나의 주체, 하나의 本性으로 대하는 哲學은 때로는 偉大에 때로는 悲慘에 本性을 귀착시킴으로써 동일한 矛盾과 갈등에 부딪쳤다. 人間을 인간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哲學은 人間 가운데 존재하는 또 하나의 本性, 더 정확히 말해서 人間 가운데 〈공허한 흔적〉의 상태를 잔존하는 또 하나의 本性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스칼의 독창성은 바로 이 또 하나의 本性을 인정하며 그것을 그의 人間學의 주축으로 편입시킨 데 있다. 그의 人間은 하나의 本性이 아니라 두개의 本性, 더 정확하게는 두개의 本性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自然과 恩寵——그러나 墮落으로 인하여 自然은 盲目과 悲慘의 상태에 처해 있고, 恩寵은 人間 가운데 무력하고 공허한 흔적만으로 남아 있다. 哲學者들이 그토록 고양했던 偉大는 실은 人間의 本性(自然)에 속한 것이 아니라 人間을 뛰어넘은 恩寵, 그러나 타락한 人間 가운데서 無力한 것으로 화해버린 恩寵에 속한 것이다.

人間을 단일한 自然(本性)으로 보지 않는 것, 그 어떤 형태로나 그 가운데 恩寵이 개입된, 自然과 恩寵의 어떤 복합적인 존재로 보는 것——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人間은 人間을 넘어선다〉——파스칼은 이렇게 표현한다. 恩寵의 도입은 단순히 人間의 영적 구원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人間의 존재론적 설명의 단계에서도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우리는 哲學이 人間을 단순한 本性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가를 보았다.

36) Cf. fr. 430-309 (Br. minor. p. 522-523).

파스칼은 人間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自然과 恩寵과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다.

우리는 人間學에서 神學에의 移行을 말한바가 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파스칼의 人間學 가운데 이미 神學的 槪念이 너무나도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神學은 人間學이 끝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각각 깊숙히 상호침투되어 있으며, 人間學은 神學에 의해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양자를 묶는 개념이 墮落——原罪라는 槪念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基督敎敎理의 핵심이기도 한 이 개념에 의해 파스칼의 人間學은 완결되며 여기서부터 救援의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된다. 파스칼은 創造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다르다는 사실의 認識이야말로 철학적 人間學의 모순을 뛰어넘는 열쇠라고 믿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말할 수 있다. 創造의 상태는 人間이 神의 偉大와 성스러움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自然과 恩寵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의 상태는 人間이 神의 축복에서 추방되어 다른 피조물의 차원으로 추락된 상태, 즉 自然과 恩寵의 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리된 恩寵의 무력한 추억만을 안고 盲目과 悲慘 속에 내던져진 自然의 상태이다. 따라서 人間의 현재의 상태는 그의 존재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 상실된 상태, 자체 속에 채워져야 할 眞空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인간의 비극과 불행은 여기서 유래한다.

이러한 人間觀을 인정할 때 人間의 구원에 대한 해답은 논리상 명백해진다. 그것은 創造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분리된 自然과 恩寵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아담의 原罪에 의해 분리된 이 두개의 本性의 완벽한 결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발견한다.

Ⅳ. 結　　語

우리는 人間의 존재론적 二元性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파스칼의 人間學이 哲學的 二元論의 矛盾과 좌절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二元論에 귀착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우리가 垂直的 二元論이라 명명한 이 二元論은 사실상 파스칼의 창작은 아니며 基督敎와 더불어 해묵은 聖書的 人間學에 속한다. 舊約의 人間이 그러했고 바울——St. Paul의 人間이 그러했다. 그 가운데 수없이 되풀이되는 〈肉體 la chair〉 또는 〈이 세상 le monde〉이란 말은 생리적 또는 물리적 의미로 쓰여진 말은 아니다. 〈肉體〉는 恩寵으로부터 분리된 人間 그 자체, 나아가서는 恩寵에 대항하는 自然의 상태를 말하며 〈이 세상〉 역시 神의 의지를 거역하는 한 集團으로서의 人間을 의미한다. 〈肉體〉와 〈이 세상〉은 결국 하나의 意志, 하나의 精神, 하나의 哲學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神, 聖靈, 恩寵과 대립되어 있다. 肉體와 聖靈,

自然과 恩寵, 人間과 神——基督敎는 엄밀히 이 二元論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人間과 世界를 설명할 유일한 原理로 제시하고 있다. 人間을 단순한 人間으로, 즉 하나의 단일한 自然으로 보는 대신 그가 초월적 존재와 맺는 관련의 圖式으로 파악하려는 것——기독교적 人間學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人間은 人間을 넘어선다〉라고 말함으로써 파스칼은 이 영원한 기독교의 명제에 합류하고 있을 따름이다, 자신의 극히 독창적인 방식에 의해.

參 考 文 獻

Textes de Pascal

Pascal (Blaise), *Pensées*, par Louis Lafuma, Paris, J. Delmas, 1960

——— *Pensées et Opuscules*, par Léon Brunschvicg, nouvelle édition mise à jour par Geneviève Lews et Didier Anzieu, 1968.

——— *Entretien avec M. de Saci, Commentaire*, P.U.F., 1966.

Ouvrages consultés

Goldmann (Lucien) *Le Dieu caché*, Paris, Gallimard, 1955.

Gouhier (Henri): *Blaise Pascal, commentaires*, Paris Vrin, 1966.

Mesnard (Jean), *Pascal devant Dieu*, Paris, Desclée de Brouwer, 1965.

Le dualisme chez Pascal

Whan Lee

Notre thèse a pour objet de mettre en lumière, à travers les oeuvres de Pascal, les *Pensées* en particulier, le dualisme de la pensée pascalienne.

Nous avons essayé, d'abord, de dégager la structure même des *Pensées* qui dénote déjà un arrière-fond dualiste: répartition en deux parties d'un mouvement apologétique.

Nous nous sommes, ensuite, attachés à analyser la première partie des *Pensées*, où l'auteur finit par montrer chez l'homme ce qu'il appelle "les contrariétés", en d'autres termes "la duplicité de l'homme". Est-ce à dire que Pascal se range parmi les humanistes traditionnels qui constatent dans l'homme un mélange indissoluble de bassesse et de grandeur?

Mais, Pascal ne s'arrête pas à cette constatation, il s'attache, au contraire, à donner une explication plausible à cet état de duplicité. En s'adressant aux philosophes, qui, partagés en deux clans, dogmatistes et pyrrhoniens, cherchent chacun à leur manière, à expliquer l'homme, Pascal ne tarde pas à déceler chez les uns comme chez les autres un défaut fatal de leur démarche qui ne fait qu'embrouiller la carte, au lieu d'apporter de la lumière.

"Ces sages du monde placent les contraires dans un même sujet; car l'un attribue la grandeur à la nature et l'autre la faiblesse à cette même nature, ce qui ne pouvait subsister."

Tel est l'échec inévitable d'une dialectique philosophique, qui postule, disons, un dualisme ***horizontal***. Et Pascal nous invite à quitter le plan où s'élaborent les pensées humanistes, car "la foi nous apprend à les mettre en des sujets différents, tout ce qu'il y a d'infirme appartenant à la nature, tout ce qu'il y a de puissant appartenant à la grâce".

Le nivau humain où il s'était placé dans son étude de l'homme se prolonge ainsi à un niveau transcendental et c'est ce passage d'un dualisme horizontal à un dualisme vertical qui constitue l'essentiel d'une anthropologie pascalienne. "L'homme passe infiniment l'homme", dira Pascal.

Inutile d'ajouter, pour conclure, que cette convergence de l'humain et du transcendental, ce dualisme de la nature et de la grâce constitue le fond même de la conception chrétienne de l'homme.